

보도시점 : 2026. 9. 7.(월) 11:00 이후(9. 8.(화) 조간) / 배포 : 2026. 9. 7.(월)

지명·공간정보 기술, 미주 16개국과 나눈다

- 8일부터 미주지리역사연구소 회원국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 국토지리정보원(원장 김원대)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국토지리정보원과 수원컨벤션센터 등에서 미주지리역사연구소(PAIGH, Pan 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) 회원국을 초청하여 ‘제5차 지명 및 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’을 개최한다.
 - 이번 프로그램에는 아르헨티나·볼리비아·브라질 등 PAIGH 회원국의 지명·공간정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전문가, PAIGH 관계자 등 16개국 19명이 참가한다.
- 프로그램은 국내 지명·공간정보 관련 정책과 최신 기술 현황을 소개하는 전문가 강의와 현장 견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. 특히 올해는 참가국이 자국의 지명관련 정책과 현황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‘참가자 세션’을 확대해 회원국 간 전문 지식과 경험을 폭넓게 공유할 계획이다.
 - 참가자들은 한국의 지명 제도, 고지도, 국가지도집, 지명연구의 동향과 시사점, 한국의 공간정보 활용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,
 - 국립지도박물관, 국토위성센터, 애기봉평화생태공원,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등 한국의 공간정보 및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.
 - 또한,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참가국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“세계 지도·지리도서 전시회”도 열린다. 이 자리에는 각국의 대표지도와 함께 대한민국 국가지도집, 3D 점자지구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지도·지리분야 발간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.

□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제49차 PAIGH 이사회에서 상임옵서버국*으로 가입했으며,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·공간정보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기관으로 선정됐다. 이후, 2021년 지명분야 웨비나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네 차례의 초청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하며, 미주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이어왔다.

* PAIGH 총회 공식 참석 및 발언권을 갖는 국가로 의결권은 없으나, 미주 회원국들과 공간정보 분야 기술 협력 및 교류를 수행하며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함

□ 국토지리정보원 김원대 원장은 “이번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지명·공간정보 분야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동시에 PAIGH 회원국의 다양한 사례를 함께 논의하는 상호 교류의 장”이라며,

○ “앞으로도 미주 지역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지명·공간정보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	책임자	과 장	김희경 (031-210-2605)
		담당자	사무관	순금주 (031-210-2710)



참고 1

2026년 PAIGH 회원국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요

□ 추진 배경

- 제49차 PAIGH 이사회('19.11월)에서 우리나라는 상임옵서버국으로 가입, 우리원은 지명·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담기관으로 선정
- 이에 따라, 네 차례의 PAIGH 초청연수 프로그램 개최 경험*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회원국 대상 초청 및 교류 협력 프로그램 추진

* ('21년) 지명 웨비나 개최 / ('22년~'25년) 지명·공간정보 초청연수 4회 개최

□ 행사 개요

1) 프로그램명

- (국문) 2026 미주지리역사연구소(PAIGH) 회원국 대상 지명 및 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
- (영문) Capacity Building Program on Geographical Names and Geospatial Information for Experts of PAIGH Member States

2) 프로그램 기간 : '26. 9. 8.(화) ~ 9. 11.(금) / 4일간(출입국 일정 제외)

3) 장소 : 수원컨벤션센터(주행사장),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(숙박), 국토지리정보원(국립지도박물관, 국토위성센터) 등

4) 참가대상

- 참가인원 : PAIGH 회원국 16개국* 공무원·전문가 총 19명

* 아르헨티나, 볼리비아, 브라질, 칠레, 콜롬비아, 코스타리카, 에콰도르, 엘살바도르, 과테말라, 온두라스, 멕시코, 파나마, 파라과이, 페루, 도미니카 공화국, 우루과이

- 참가자격 : 지명표준화 및 공간정보 관리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, 또는 해당 전문가로 회원국별 담당 기관 또는 PAIGH 본부가 추천하는 자

5) 프로그램 언어 : 한국어-스페인어(동시·순차통역)

□ 기관명 : 미주지리역사연구소

(PAIGH; Pan 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)

※ 스페인어 : IPGH(Instituto Panamericano de Geografia e Historia)

□ 주요 연혁

○ 1928년 기관 설립

○ 1930년 사무국 개소(멕시코시티)

○ 1949년 미주기구(OAS)*의 산하 전문기구로 활동 개시

* 미주기구(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, OAS) : 북·중·남아메리카를 포괄하여 미주 국가들의 협력과 연합을 위해 1948년 창설된 국제기구

○ 2019년 한국 상임옵서버국 가입

□ 주요 활동

○ 미주지역 지도 제작, 지리학, 역사학, 지구물리학 관련 연구 조정·지원 및 교육

○ 회원국들의 상기 분야 현대화 및 역량강화 등

□ 구성 현황

1. 당국

○ (임기) 4년(최근 구성된 임원 임기 '25~'29)

○ (선출) 총회(개최 6개월 전 후보자 지원)

* 각 임원은 타국에서 승계(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국가에서 승계 불가)

○ (임원 현황)

- 의장 : Max Alberto Lobo Hernández(코스타리카)

- 사무국장 : Antonio Campuzano Rosales(멕시코)

- 지도제작위원장 : Martha Paola Villagomez Orozco(에콰도르)
- 지리위원장 : Hermann Manríquez Tirado(칠레)
- 역사위원장 : Filiberto Cruz Sánchez(도미니카 공화국)
- 지구물리위원장 : Héctor Mora Páez(콜롬비아)

2. 법정 회의

○ 총회

- (주기) 매년*

* (제22차 총회) 이사회 폐지 및 개최 주기 기존 4년 → 매년으로 변경

- (참석) 회원국(투표권, 발언권), 상임옵서버국(발언권)
- (최근활동) 제26차 총회('25.10.15.~10.17, 온두라스)
제25차 총회('24.11.19.~11.21, 칠레)
제24차 총회('23.11.1.~11.2, 도미니카공화국)

○ 이사회

- 제22차 총회('21) 결과에 따라 폐지

□ 회원국 및 상임옵서버국

- 회원국(20): 멕시코(사무국 소재), 아르헨티나, 벨리즈, 볼리비아, 브라질, 칠레, 콜롬비아, 코스타리카, 에콰도르, 엘살바도르, 미국, 과테말라, 아이티, 온두라스, 파나마, 파라과이, 페루, 도미니카공화국, 우루과이, 베네수엘라

* 니카라과의 탈퇴('26.1월)로 現 20개국이며, 미국의 탈퇴는 '28.1.30.부로 발효 예정

- 상임옵서버국(5): 대한민국, 스페인, 프랑스, 이스라엘, 자메이카

* 아시아 국가로는 대한민국이 유일